

우주시대를 연다

나로호 발사 D-5

2 우주개발의 경제적 효과

‘과학기술의 꽃’ 나로호 파급효과 3조

지난해 광주 출신 이소연 박사가 한국 최초로 우주 탐험을 하고, 지난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면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오는 19일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 로켓(나로호·KSLV-1)’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역사적 광경도 예고돼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우주개발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주산업, 왜 눈독 들이나=우주산업은 전기·전자를 비롯해 기계·화학·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망라한 ‘현대 과학기술의 꽃’으로 불린다. 기술 파급 효과는 자동차 산업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러시아·유럽·일본 등 경제 강국이 앞다퉀 우주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주산업은 일상 생활의 획기적인 편의를 가져왔다.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는 연료전지를 비롯해 컴퓨터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MRI), 고어텍스, 동결건조식품, 인공관절 등 수

2010년 세계 시장규모 6천억달러 달해 한국, 선진국과 기술 격차...투자 늘려야

많은 기술들이 우주산업의 부산물로 발명됐다. 높은 열을 견디기 위한 기술이 건축용 단열재로 발전했고, 우주비행사들의 식수와 음식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한 정수기와 전자레인지의 현재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글라스, 자동차잠금장치제동장치(ABS), 골프채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예다.

위성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기상 예보, 지도 제작, 토지구획 확정, 식생 및 토양에 관한 연구와 환경과외 감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길 안내, 항공기 이착륙, 원격수술에 이르기까지 우주개발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예는 수없이 많다.

◇우주산업 시장 6천억달러 육박=미국 우주제단에 따르면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을 시작한 지

40여년이 지난 1996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750억 달러였다. 그러나 최근 10년사이 우주산업 시장은 매년 10~20%씩 성장해 2007년 2천510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 2010년이면 그 2배인 5천억~6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우주개발에 뛰어든 것은 초보적 단계의 소규모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띄운 1992년이다. 2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개발 역사로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에 비해 위성 기술은 많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발사체 기술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해 199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2조4천6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보다 우주개발 분야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은 우

리나라의 83배, 일본은 11배, 프랑스는 8배 더 많은 예산을 우주개발에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3%에 머물러 있는 우주분야 투자를 5%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로호 경제효과 3조원=오는 19일 발사 예정인 ‘나로호(KSLV-1)’는 5천25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발사체 설계 및 핵심 기술은 러시아가 맡았지만 국내 160여개 업체와 43개 대학·관련 연구소가 참여해 위성·발사체 기술, 각종 응용 기술 등에 대한 기술축적을 이뤘다.

나로우주센터 건설에는 현대중공업이 발사장과 발사대 건설을 담당했으며 나로호 조립은 대한항공, 추진계통 제작은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100%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지는 ‘KSLV-II호’ 개발 등이 이뤄질 경우 일본·중국 등 우주산업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현재 3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北, 현대아산 직원 137일만에 석방

꽤 막힌 남북관계 일단 ‘숨통’

정부, 민간 방북·물자 반출 인도적 분야 문 열듯

개성공단에서 지난 3월30일 체포된 후 14일로 138일째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석방은 일단 남북관계에 첫 장애물을 해소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석방된 미국인 여기자 2명과 함께 유씨 사건이 장기화한 데는 실제 조사가 그만큼 길어졌다기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 차원의 고려 때문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유씨 석방은 엄밀히 말해 남북관계에 플러스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민간 방북에 제동을 걸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까지 제약해온 데는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유씨에 대한 북한의 ‘물지마 억류’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즉 현재 북핵 상황은 변함이 없지 않지만 유씨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운신의 폭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정부는 유씨 석방을 계기로 인도적 분야에서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풀린 했지만 여전히 제한을 가하고 있는 민간 방북의 문을 좀 더 열고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물자 반출 제한도 더 완화하는 등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화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유씨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활성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유씨 석방만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우선 유씨건 외에 지난달 30일 월선했다가 파묘된 ‘800 연안호’ 선원 4명의 귀환 문제와 작년 남북관계 급랭의 계기가 된 금강산 관광객 6박 왕자씨 총격 피사자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 대북 제재가 엄연히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개방 3000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대북 접근을 본격화하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이 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게 여전히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제인 셈이다. **■연필뉴스**



북한 당국에 억류 중이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13일 오후 풀려났다. 유 씨가 석방되기 전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차량들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필뉴스**

정부, 가공용 쌀 30% 싸게 공급

“쌀소비 촉진 서둘러야” 李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쌀라면, 쌀과자 등 쌀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공용 쌀을 30% 인하한 가격에 공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면서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가공식품으로 새 소비 시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공용 쌀의 공급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2005년산(産) 쌀을 30% 인하해 kg당 1천446원인 것을 1천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싸게 공급해 생기는 손실은 정부가 떠안게 되지만 대신 밀가루 제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수, 라면, 빵 시장에서 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춰주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3년 이상 보관된 정부 쌀을 가공용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가공용 쌀’을 공급하던 데서 전환, 점진적으로 ‘쌀가루’를 직접 공급하기로 하고 규모화된 쌀가루 제분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같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대규모 제분공장을 지으면 쌀가루 기술 개발이 촉진돼 떡 외의 과자, 면류, 빵류 등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쌀가루를 만들 때 세척 과정에서 생기는 쌀뜨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면 토양 개량제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막걸리 전용 잔을 개발해 우리 술의 고급화·세계화에도 시동을 걸기로 했다.

군남이나 학교 급식 등 공공부문에 우수한 품질의 쌀 가공식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이명박(MB) 대통령은 13일 인천 강화군의 한 중소기업에서 ‘제2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쌀 소비 진작 대책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한스코리아를 방문, 쌀을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을 소개받은 뒤 회의 참석자들과 쌀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쌀 가공식품은 우리 체질에 맞는 건강식”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쌀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면서도 “농민을 위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쌀 막걸리, 쌀 건빵 등 쌀을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의 원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